

# 영화 교육

MAGAZINE

나는 왜 학생들과  
영화를 만들게 되었나

지역별 영화교육모임을 소개합니다

학생들과 참여할 수 있는  
2024년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어린이청소년영화 리뷰

카메라, 어떤 것 쓰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영화〉 저자를 만나다

영화교육 관련 연수 및 도서 안내

전국영화교육연구회가  
걸어온 길

Since 2020

# 존경하는 전국의 영화교육 동료 여러분께

2024년 봄,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전국영화교육연구회 2024년 영화교육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영화교육 활동들을 돌아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맞게 영화교육을 하고 계시는 여러 사례들이 더 많이 공유되고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장 황의석

## 영화교육소식지, 영화교육의 현장을 담다

영화교육소식지는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영화교육 활동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각 지역별 영화교육모임의 대표들이 영화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다채로운 영화 교육 사례들이 영화교육소식지를 통해 한데로 모이고 응집되어 영화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찾아보는 귀한 자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영화교육 전문가들의 논고와 연구 결과들은 영화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에듀씨네 한지은 선생님, 상상그리다필름 정도행 선생님, 경기영화교육연구회 고혁민 선생님, 인천 시네마공작소 김주광 선생님, 대전 썬세계 서성환 선생님, 충북영화교육연구회 이진향 선생님, 충남영화교육연구회 이현재, 정진열 선생님, 광주 참네모 김경환 선생님,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이충현 선생님, 경북영화교육연구회 고장섭 선생님, 전국영화교육연구회 고문 지태민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영화교육소식지가 절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작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화교육소식지 발간호에 영화교육 사례를 담아 원고를 제출해주신 수많은 선생님들과 전국영화교육연구회 회원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영화교육소식지의 편집장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김경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화교육소식지 발간을 통해 선생님들의 영화교육 소통의 장이 만들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교육의 미래

전국영화교육연구회는 앞으로도 영화교육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교사, 영화 교육 전문가,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영화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영화가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전국영화교육연구회 회장 황의석





# 전국영화교육연구회

## Table of Contents

Film Education Magazine  
captures the scene of  
film education

전국영화교육연구회 조직도 및 연혁	05
교육영화제 소개	07
지역별 영화교육모임 소개	09
학생들과 참여할 수 있는	28
2024년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어린이청소년영화 리뷰	29
나는 왜 학생들과 영화를 만들게 되었나	33
카메라, 어떤 것 쓰세요?	39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영화’	41
저자를 만나다	
토론토 필름스쿨을 다녀오다	45
영화교육 관련 연수 및 도서 안내	48
역사영화연대표	50
2024 전국영화교육연구회 회원 명단	51





# 연혁 및 조직도

## 안녕하십니까.

전국영화교육연구회(이하 '전영교') 초대 회장 지태민입니다. 전국영화교육연구회는 2019년 가을에 학교에서 영화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전국 단위의 영화교육연구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2020년 1월 창립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였고, 연 1회 교육영화제 및 단편영화 제작워크숍을 통해 전국 영화 교육 연구회 선생님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기 회장단(회장 지태민, 부회장 김석목, 총무 고혁민)이 연구회를 꾸려 나가며 5차례의 교육영화제 및 6차례의 단편영화 제작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영화 읽기, 온라인 교실영화제, 스마트폰 영화 제작 연수, 찾아가는 교육영화제/영화관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초창기 40명 정도에 머물렀던 일반 회원(온라인 회원 포함)이 4년 사이에 100명 넘게 늘어났으며, 20명 내외의 정회원(회비 납부)과 10명 내외의 운영진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영교 1기 회장단은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024년 2월 2기 회장단(회장 황의석, 부회장 김주광, 총무 김경환)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2기 전영교는 연구회 성격에 맞게 전국 각지에서 영화 교육을 하는 지역 연구회들에서 한 명씩 운영진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2기 전국영화교육연구회의 무구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연구회 목적

1. 학교 안팎에서 영화교육이 보편화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
2. 영화교육이란 영화제작교육, 영화읽기교육 등을 의미한다.
3. 영화교육소식지 발간, 단편영화제작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회원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학교 안팎에서 영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4. 교육부, 교육청, 영화진흥위원회 등과 협력하며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영화교육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5. 기존 영화 교육 관련 모임과 연대하거나 지역 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서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느슨한 연대를 지향한다.

# 연혁 및 조직도

## 연구회 주요 활동

- 📺 교육영화제 (매년 1회)
- 📺 단편영화제작워크숍 (매년 1~2회)
- 📺 교실영화제 (수시, 온라인)
- 📺 국내외 주요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협력

## 연구회 주요 활동(걸어온 길)

- 📺 2020.1 전국영화교육연구회 설립
- 📺 2020.1 제1회 교육영화제 개최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영화제'
- 📺 2020.1 제1회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개최(서울)
- 📺 2020.8 제1회 서울교육대학교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개최
- 📺 2021.1 제2회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개최(부산)
- 📺 2021.2 제2회 교육영화제 개최 '교육영화제 ON'
- 📺 2022.1 제3회 교육영화제 개최 '다시 학교로! 다시 극장으로!'
- 📺 2022.2 제3회 서울교육대학교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개최
- 📺 2022.8.~9.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영화읽기(용산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 1
- 📺 2022.8 제3회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개최(대전)
- 📺 2022.12. 제4회 교육영화제 개최 '영화 속 교실이야기'
  -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지원 사업 선정 // 경쟁 부문(일반인) 도입
- 📺 2023.5. 찾아가는 교육영화제(광주 및 제주)
- 📺 2023.5. 찾아가는 영화관(춘천 및 남원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 2023.8.~9.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영화읽기(용산미래교육지구 사업) 시즌 2
- 📺 2023.9. 제5회 교육영화제 개최 '우리가 만드는 빛'
  - 카카오같이가치(공익펀딩) 성공
- 📺 2022.9~12. 제4회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개최(서울)
- 📺 2024.9. 제6회 교육영화제 개최 예정 '영화로 하나 되는 우리'

## 우리들의 영화 축제 '교육영화제'

교육영화제 대표를 맡고 있는 지태민입니다. 교육영화제는 영화 읽기부터 영화 제작까지 학교 안팎에서 영화 교육을 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 축제입니다.

📷 영화 읽기 활동으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영화들을 발굴하고, 영화를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씨네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 영화 제작 활동으로 학교에서 영화를 창작하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육을 주제로 영화를 제작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매년 9월 교육영화제를 개최하며 영화제 기간 이외에도 연간 다양한 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를 추구합니다.

교육영화제는 1회부터 5회까지는 전국영화교육연구회 주최로 진행해왔으며, 전국영화교육연구회 2기 회장단이 새로 구성되면서, 6회 교육영화제부터는 별도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영화 제작 부분을 담당하는 전국영화교육회 및 영화 읽기 부분을 담당하는 에듀씨네 두 단체의 콜라보 형태로 운영해갈 예정입니다.

### 교육영화란?

- 📷 교육을 주제로 한 영화
  -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인공인 영화
- 📺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

### 교육학생 창작 부문

- 📷 어린이·청소년·교사 제작 영화
  - 📄 국내 및 해외 교육영화
- 📺 단편 및 장편 교육영화
- 🎨 장르 구분 없음

### 일반인 창작 부문

- 📷 대학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나이) 비청소년(일반인)이 제작한 영화
  - 📄 유아, 초등, 중고등, 대학 등 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외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영화
- 📺 상영 시간 30분 이내 단편 영화
- 🎨 장르 구분 없음



## 우리들의 영화 축제 '교육영화제'

제6회 교육영화제 연간 일정								
2024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준비 기간	준비위원회 구성 제6회 교육영화제 일정 및 주제 확정							
에듀씨네 공모전			모집	심사	발표	학생(영화제 포스터, 영화 백일장) 교사(영화 리뷰, 수업 사례)		
카카오 같이가치 편당				편당				
찾아가는 교육영화제				서울교대 및 전주				
단편 경쟁 출품 (일반일 부문)				모집	심사	발표 (본선 진출작)		
단편 경쟁 출품 (학생 부문)					모집	심사	발표 (본선 진출작)	
제5회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전영교 주최)	제6회 교육영화제 개최 확정					7월 or 8월 4박 5일 숙박형 수료작 교육영화제 상영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영화원기 (용산구)							초등 및 중고등 대상	
제6회 교육영화제	9.1.(일)~9.7.(토) 아트나인 외(예정) 영화로 하나 되는 우리				영화제 포스터 공개	자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및 예매 오픈	영화제 개최

2024년 제6회 교육영화제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주일간 '영화로 하나 되는 우리'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4월 에듀씨네 공모전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사전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영화제를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 🍷 일정: 2024.9.1.(일)~9.7.(토)
- 🍷 장소(예정): 아트나인 외
- 🍷 주제: 영화로 하나 되는 우리
- 🍷 교육영화제 주요 프로그램 및 연간 일정



## 지역별 모임 소개



전국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교육

영화 교육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께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지역별 영화 교육 연구 모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중등영화교육연구회  
“에듀씨네”  
입니다.**

에 : 에니타임, 애니웨어

듀 : 듀 무비, 러브 무비

씨 : 씨네필이 되고싶은 여러분

네 : 네, 아니 세 번째 주 일요일마다 만나요.



---

**"교육하다(EDUCATION)"+"영화(CINE)"  
영화를 활용한 범교육을 실천**

---

“에듀씨네”는 “교육하다(Education)”, “영화(Cine)”를 합쳐 영화를 활용한 범교육을 실천하자는 뜻을 담은 교사연구단체입니다. 수도권 교사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 감상 교육 활동지 제작자, 교육 연극 전공자부터 영화 제작 및 리뷰 창작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에듀씨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며 오프 모임은 세 번째 주 일요일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납니다. 영화 감상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영화 감상을 통한 평생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 수도권 교사 모임 초중등영화교육연구회 "에듀씨네"

---

학교 현장에서의 영화를 활용한 융합수업 활동의 일반화를 위해 '월간 에듀씨네'를 제작하여 매달 배포 중입니다. '월간 에듀씨네'는 인디스쿨, 에듀콜라 등의 사이트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사 및 학생 대상 영화 추천 소개글을 작성하여 SNS(@educine)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educine를 팔로우하시면 에듀씨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시사회 등)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를 활용한 교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각종 지역 공동체와 협업하여 영화 감상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용산구 교육 사업인 '마을과 함께하는 영화 읽기' 프로그램을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 영화 감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상자료원과 함께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 영화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에듀씨네'는 전국영화교육연구회와 함께 '교육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어린이, 청소년 및 교육을 주제로 한 일반인들의 영화를 발굴하여 대중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는 축제로 2024년 제6회 교육영화제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로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혼자서 보는 영화가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누며 보는 영화. 앞으로 더욱 더 영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으시다면 "에듀씨네"와 함께하세요.

### <영화 관련 '에듀씨네' 회원 주요 활동>

- 제 5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우수상(촬영) / 입선 수상
- 제 6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우수상 / 입선 / 네티즌상 수상
- 교육영화제(2020년~)
-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영화읽기(2022년~)
- 찾아가는 영화관(2023년~)

# 안녕하십니까. 초·중등 영화교육연구회 '경기도 영화교육연구회' 입니다.

2023년 처음 구성된 경기도영화교육연구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연구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영화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영화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 '통합적인 영화교육방안' 연구

보편교육으로서의 영화교육은 감상, 창작, 생활화 각 영역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영화교육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나, 그동안 감상교육과 달리 창작교육은 스마트기기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의 제약들로 인해 정규 수업 시간내에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제약들을 넘어 초·중학생들도 손쉽게 영화를 창작하며 자신의 생각을 영상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며 통합적인 영화교육 방안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목표에 맞추어 교사대상 연수 또한 통합적이며, 보편적인 영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실시한 영화감상교육 워크숍을 시작으로 7월 영화교육 표준안 워크북 활용방안 연수, 9월 '제5회 교육영화제' 답사 연수, 10월 영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화교육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 경기도 선생님들의 "경기도영화교육연구회"

---

그리고, 영화에 관심은 있으나 학교에서의 영화교육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에게 영화교육을 알리기 위해 연구회 사업인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시네마 공동체'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영화인 멘토와 영화를 애호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영화교육을 오랜시간 해온 선생님들이 다 함께 서울독립영화제를 다녀온 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소 낯설게 느껴지던 인디영화를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영화교육을 오랜 시간동안 해온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차원의 취미를 넘어 영화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영화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교육영화 제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서울시초중등영화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한 교사 영화제작 직무연수에서 제작한 '십리도 못간 선생님(연출: 봉일천초등학교 황주명)'의 제작지원으로 참여하여 영화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알리는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영화교육연구회는 더욱 많은 선생님들이 영화교육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업장면에서 영화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함께 연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창작한 영화를 우리 반을 넘어 다른 학교와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영화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상그리다필름' 입니다

상상하는 것을  
마음껏 콘텐츠로 표현하는 것을 꿈꾸는  
교사콘텐츠디자인그룹  
'상상그리다필름'입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다.

먼저 상상그리다필름의 탄생 배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상상그리다필름을 이끌고 있는 정도행 선생님은 2000년 초반부터 SBS방송아카데미, MBC아카데미, MG25모션그래픽, VSLAB디지털아트, 서울사진아카데미등 다양한 영상 및 이미지관련 공부를 하고, 깊이있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영상관련 학과에 3학년 편입 후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상학 영상디자인을 전공 했습니다. 2019년에는 디지털아트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며 2023년에는 서울, 일본 교토, 강릉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오랜시간 영상에 대한 공부를 해오던 중, 교사로서 크리에이팅의 중요성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동안 공부해 온 다양한 영상에 대한 지식을 선생님들에게 전파하고자 2019년 경기 북부의 교사 모임으로 상상그리다필름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상상그리다필름은 경기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50여명의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분과

상상그리다필름 연구회는 글쓰기시나리오분과, 기초영상제작분과, 에듀테크분과, 디지털드로잉분과, 사진분과로 구성되어 다양한 니즈를 가진 교사들이 함께하며 분과별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며 자신의 역량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상상그리다필름의 연수가 가진 다른 연구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영상 및 콘텐츠 관련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 영상 관련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많은 경험을 나누고, 활용 사례를 적용하는 등 수업과 연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경기 및 수도권 중심 전국 선생님과 함께하는 '상상그리다필름'

---

### 상상그리다필름 콘텐츠팀

상상그리다필름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23년에만 10여편을 제작하며, 많은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상그리다필름에서 만드는 콘텐츠는 단순히 예쁜 영상을 만드는데 있지 않습니다. 재미와 정보전달의 차원을 넘어,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함께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는 각 장면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장면에는 팀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결합되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팀원이 작업을 할 때는 한 장면의 세팅을 위해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 이상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상상그리다필름에서 만든 영상은 '알잘딱깔센'하다, 혹은 '대행사, 프리덕션의 영상보다 좋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발전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매 콘텐츠마다 좋은 피드백을 받는 이유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어갈 때 콘텐츠팀원의 고민이 함께 녹아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목표

2019년 처음 상상그리다필름을 창단하며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매년 정말 많은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수는 각자 선생님들이 혼자서는 배우기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드릴 수 있었고, 교실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분과별 연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분과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와 결과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결과와 교육 방법이 실제 교육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와 교육 방법을 전국의 교사들과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상그리다필름의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닌,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공모프로그램 ‘시네마 공작소’입니다.

‘시네마 공작소’는 이름 그대로 영화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가 범람하고 소비 되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학생들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요구와 수준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이를 받쳐줄 인적, 물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구요.

이에 2010년대 초반부터 인천에서 학생들과 함께 영화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며 서로 교류하던 몇몇 영상쟁이 선생님들이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과 함께 ‘시네마 공작소’라는 공모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네마 공작소는 ‘영화’를 만들어보고는 싶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 및 학생들에게 멘토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한편의 영화를 완성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그렇게 완성된 영화는 공모에 참여하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모여 연말 시상회를 통해 근사한 축제로 마무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강화도 장화리 갯벌에서 ‘파도소리 시네마 캠프’를 통해 멘토링 중인 각 학교의 동아리들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미션을 수행하며 우정을 다지기도 하고, 서로 만들게 될 영화에 대한 제작발표회 시간도 갖습니다. 2018년 제1회로 시작된 시네마 공작소는 2024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네마 공작소가 추구하는 바는 인천의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연출과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영상 제작 및 예술교육으로서의 영화 제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30여 곳의 학교에서 200여 명 이상의 학생들과 서른 분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영화 제작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맛보았고 연출, 카메라 감독, 배우 등 관련 분야로 진로를 정하여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시네마 공작소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멘토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 역시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더 크고 화려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매년 멘토·멘티의 관계로 만나는 학생들과 최선을 다하여 좋은 영화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젊고 재능 있는 멘토 선생님들을 계속 발굴하여 더 풍부하고 안정적인 멘토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를 찾는 학교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신가요? 지금 바로 시네마 공작소에 공모해 주세요. 짝짝한 참교사 멘토 쌤들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인천의 '시네마 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네마 공작소 제작 작품 영화제 수상 이력〉

- 2018 인천어린이영상페스티벌 대상 〈IF〉(2018)
- 2018 인천어린이영상페스티벌 관객상 〈체인지〉(2018)
- 2018 인천어린이영상페스티벌 최우수상 〈쥬사위〉(2018)
- 2018 청소년창작영상제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은상/기획상, 2019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우수상 〈침묵과 형벌〉(2018)
- 2019 청소년창작영상제 장려상, 2019 인천어린이영상페스티벌 장려상, 2020 페럴스마트폰영화제 입선 〈난 괜찮아〉(2019)
- 2019 인천어린이영상페스티벌 대상/관객상, 2019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연기상, 2020 5.18 3분영화제 최우수상, 2020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은상/각본상, 2020 인천독립영화제 입선 및 상영작 선정 〈하루〉(2019)
- 2022 대한민국국제청소년영화제 은상, 2022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우수상, 2022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장려상 〈캠코더〉(2021)
- 2023 부산국제영화제 넓은바다상, 2023 대한민국국제청소년영화제 은상 〈기억〉(2022)

# 안녕하십니까. '충남영화교육연구회' 입니다.

충남영화교육연구회는  
영화제작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충청남도의 초·중등 선생님들이 모여,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  
체입니다.



## 영화 제작 역량 성장을 선도하는 연구회



충남영화교육연구회의 시작은 지난 2019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제1회 충남학생단편영화제'로 거슬러 갑니다. 영화 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각 지역에 흩어져 따로 접점이 없었던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캠프와 전문 영화감독들의 멘토링 과정을 거쳐면서 교사 및 학생들의 영화 제작과 관련된 역량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교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영화 제작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초대 회장이신 구자경 선생님(호서고)을 중심으로 충남영화교육연구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충남영화교육연구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화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방학의 기초과정 연수를 통해 영화 교육에 관심을 지닌 선생님들의 디딤돌이 되어 드리고, 여름방학의 심화과정 연수를 통해 서로가 쌓은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여 학생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 영화창작동아리에 영화제작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면서 선생님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년 열리는 '충남학생단편영화제'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소규모지역에 청소년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강연하는 '찾아가는 학생단편영화 상영관' 운영을 통하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선생님들의 '충남영화교육연구회'

앞으로도 충남영화교육연구회는 영화 교육에 관심을 지닌 선생님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더 좋은 교육을 꿈꾸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무한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 〈영화 관련 충남영화교육연구회 및 회원 주요 활동〉

- 제11회 대만국제어린이영화제 초청, 제8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촬영상, 경쟁부문 작품상, 시나리오 부문 우수상 - 〈멋짐에 불을 붙여봐〉(2023)
- 제11회 대만국제어린이영화제 초청, 제8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경쟁부문 우수상, 시나리오부문 우수상, 제24회 애틀랜타국제어린이영화제 초청 - 〈멋진 신세계〉(2023)
- 제2회 호국보훈청소년영상제 중등부 우수상 - 〈아산! 과거와 현재의 하루〉(2023)
- 제8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비경쟁부문 작품상 - 〈휘파람〉(2023)
- 제8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특별상 - 〈우정의 열쇠〉(2023)
- 제23회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전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초청 - 〈학교 다녀오겠습니다〉(2023)
- 제7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작품상, 제18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리본더비키 초청, 제11회 대만국제어린이영화제 초청 - 〈사랑이 뭐예요?〉(2022)
- 제18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리본더비키섹션 초청, 제5회 교육영화제 폐막작 초청, 제10회 청소년인권영화제 대상, 제24회 대전독립영화제 청소년경쟁부문 우수작품상 - 〈처음으로 되감기〉(2022)
- 2022 대한민국청소년스마트폰봄영화제 장려상, 제21회 KWC공모전 콘텐츠부문 동상, 제5회 학교폭력예방스마트폰영상제 우수상 - 〈소중,한 친구〉(2022)
- 제24회 대전독립영화제 청소년경쟁부문 최우수작품상 - 〈나의 바다〉(2022)
- 제7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환경부문 우수상 - 〈유령의 노래〉(2022)
- 제1회 국제청소년창작영상제 챌린저상 - 〈나 돌아갈래〉(2022)
- 제4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최우수상,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상대전 편집부문 특별상, 제31회 가톨릭매스컴대상 특별상, 제8회 가톨릭영화제 메이드인가톨릭 초청 - 〈고행〉(2021)
- 제4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최우수상, 제23회 대전독립영화제 장려상 - 〈너의 표정을 보여줘〉(2021)
- 제4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우수상, 제23회 강원도청소년창작영상제 장려상, 제8회 춘천SF영화제 글로벌퓨처리스팅필름메이커키드상 - 〈하여 가보겠습니다〉(2021)
- 제3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장려상 - 〈러브로페터〉(2021)
- 제23회 대전독립영화제 우수상 - 〈학교는 오늘도 안녕하다〉(2021)
- 제21회 청소년창작영상제 우수상, 제43회 심상산문학문화제 초청 - 〈그날이 오면〉(2019)
- 2022 교사영화제작역량강화 특수분야 직무연수 수료작 - 〈부장전〉, 〈만개 나리〉(2022)
- 2023 교사영화제작역량강화 특수분야 직무연수 수료작 - 〈누가 죄인인가〉, 〈반배정〉, 〈간짜장〉(2023)



##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빛, ‘썬세계’입니다.

썬세계는 영화의 조각인 'SCENE'의 뜻과 새로운 '신'의 소리를 만 대전영화교육연구회의 이름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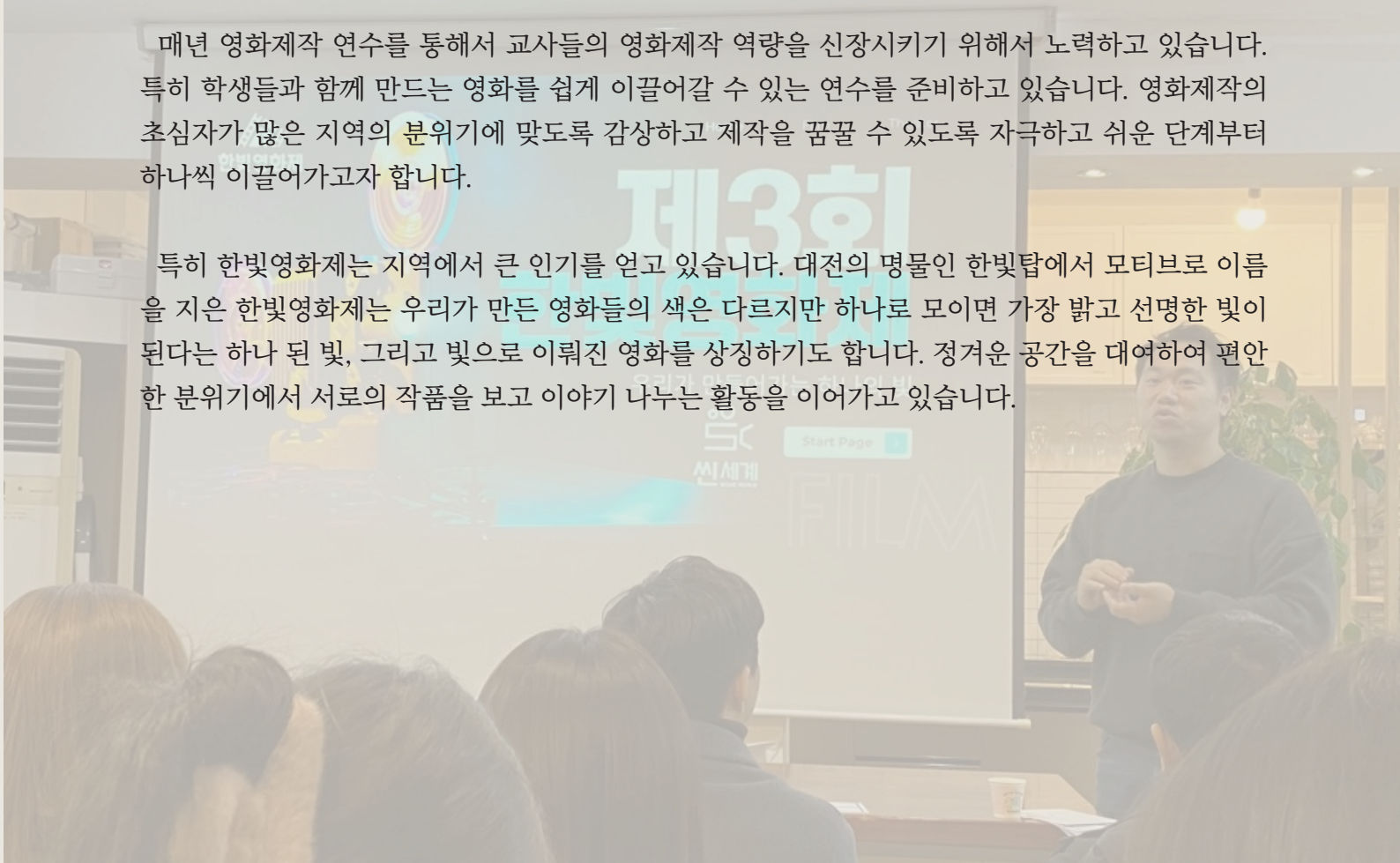


### 영화를 통한 학생과 세상과의 소통

썬세계는 2020년 4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24명의 회원과 함께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한빛영화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썬세계는 교사들이 영화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함께 세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화제작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의 영화제작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영화를 쉽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의 초심자가 많은 지역의 분위기에 맞도록 감상하고 제작을 꿈꿀 수 있도록 자극하고 쉬운 단계부터 하나씩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한빛영화제는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전의 명물인 한빛탑에서 모티브로 이름을 지은 한빛영화제는 우리가 만든 영화들의 색은 다르지만 하나로 모이면 가장 밝고 선명한 빛이 된다는 하나 된 빛, 그리고 빛으로 이뤄진 영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겨운 공간을 대여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작품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 대전 선생님들의 '썬세계'

---

대전과 충남, 충북을 잇는 충청연합영화제에 대전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를 맞는 연합영화제는 충청권 교육기관의 다양한 영화들이 하나로 모이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각종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이제부터 노범생]이라는 대표 작품으로 지역에 대전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영화제가 처음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미디어교육의 일환이기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대전에서도 영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관과 잘 협의하여 영화를 사랑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화교육이 학교에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썬세계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썬세계의 활동은 [www.썬세계.com](http://www.썬세계.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영화교육인들의 건승을 빌어봅니다.

썬세계 회장 서성환



# 안녕하십니까. '경북영화교육연구회' 를 소개합니다.

'경북 영화교육 연구회'는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제작과  
학생 영화 교육에 관심 있는  
경북 지역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입니다.

2018년도에 경주 모아초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  
북 교사 영상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었고, 이후 '경북 영화  
교육 연구회'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수업탐구공동체(교과연구회)에 선정이 되어 '경북 영화·영상 교육 연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 영화 교육 교안 개발, 영화 교육 온라인 워크숍, 영화 제작 활동, 영화제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학생 영화 교육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또 좋은 영화를 만드는 활동에 함께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아래 우리 연구회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전국 영화교육 워크숍 개최〉

- 2019년: 제1회 전국 영화교육 연구회 교사 초청 워크숍 실시(오프라인)
- 2020년~2023년: 전국 영화교육 온라인 워크숍 개최



2020년 영화교육  
온라인 워크숍 영상



2021년 영화교육  
온라인 워크숍 영상



2022년 영화교육  
온라인 워크숍 영상



## 영화 제작 워크숍과 제작 활동을 선도하는 연구회

### 〈전국 영화교육 워크숍 개최〉

- 2018년: 카메라 촬영 워크숍, 시나리오 워크숍, 영화 연출 워크숍
- 2019년: 영상 제작 워크숍, 영화 연기 워크숍
- 2020년: 모아 영화학교 진행(촬영 및 연출, 시나리오, 영화 연기 워크숍)
- 2021년: 모아 영화학교 진행(영화 제작, 시나리오 작법, 시나리오 및 영화연출 워크숍)
- 2022년: 단편영화 촬영 워크숍, 시나리오 워크숍, 영화 촬영 워크숍
- 2023년: 영상 제작 워크숍, 시나리오 워크숍, 영화 촬영 워크숍

### 〈단편영화 제작 활동〉

- 2018년: 처음 사랑, 좋은 사람 나쁜 사람
- 2019년: 피구의 기술
- 2020년: 힘을 내요, 김쌤
- 2021년: 모아라떼
- 2022년: 하이에나, 작은 오해, 과학실 귀신
- 2023년: 고백, 엘비, 전학생

처음 사랑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힘을 내요, 김쌤		모아라떼	
하이에나		과학실 귀신		고백		전학생	

## 경상북도 선생님들의 '경북영화교육연구회'

### 〈그 밖의 활동〉

- 매월 1회 정기 모임: 시나리오 회의, 학생 영화 교육 교안 연구 등
- 영화제 참석: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 전국 교육영화제, 찾아가는 영화제
- 온라인 교실영화제 진행: 2023온라인 교실 영화제 주최(참석: 경주 강동초 영화동아리, 부산 반송초,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 연구회 대표: 고장섭(경주 강동초 교사, 0508-4943-6343)

## 안녕하십니까.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오버액션'입니다.

첫 모임의 시작은 2005년으로  
전남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든 영상을  
서로 공유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좀 더 의미 있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2014년부터 함께 모여  
'개천의 용'을 시작으로  
총 4편의 공동작품을 만들었습니다.



---

### 오랜 역사와 함께 폭넓은 영화를 제작하는 연구회

---

Q1>>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긴 시간 끌어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신지?

모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중심엔 김민수, 전남윤 교감선생님이 계십니다. 영상이 비주류로 인식되는 시절부터 영상이 아이들을 지배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드는 교육 영상이 주는 힘을 믿고 저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또 모임 뒤에서 도움을 주시는 많은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임이 유지되는 긴 시간동안 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모임을 거쳐가셨습니다. 그분들께 저희 모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Q2>> 최근에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협업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다면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한 학교폭력예방영화 '비밀전학'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비밀전학은 시나리오 공모부터 연기자, 스텝 모두를 전라남도 교육가족 중에서 심사를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2023년은 학교와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모든 교사들이 느끼고 있었던 문제들이 수면 밖으로 적나라하게 떠오른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교사의 무기력한 이미지에 교사들은 깊은 회의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비밀전학' 연기자 및 제작진은 학교의 이야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학교와 세상을 연결하는 창이 되겠다는 의지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Q3>> 작품의 상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영은 항상 영화관을 대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에도 탑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올해로 13회째를 맞게 되는 순천스쿨영화제를 매해 주관하고 있습니다. 순천스쿨영화제는 전남의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영상 축제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마다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며 심사를 통해 선정작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순천스쿨영화제를 위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초청작과 인디애니유랑단의 초청작도 함께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과 구성이 있어 관객들은 즐겁게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작품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영화관에서 상영된다는 점이 매우 뜻깊게 와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해마다 여러번 참여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Q4>> 모임 선생님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분들도 많다고요?

김민수, 전남윤, 안경미 교감선생님은 도교육청 및 다양한 분야의 교육 영상들을 제작하고 계시고, 올해 회장이신 이충현 선생님께서는 학생영화동아리를 지도하며 '충현쌤과 아이들'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그 중 '산성용액'이라는 단편영화는 260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노래를 작곡하며 저희 영화 주제가를 만들어 주시는 조승필 선생님, 저희 영화의 배경 음악을 제작해 주시는 김순오 장학사님. 감성이 돋보이는 영상을 제작하시는 김소라 선생님. 유치원 아이들과 영화를 찍으시는 진유연 선생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는 교직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만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영상이나 영화제작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면서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이후에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Q5>>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앞으로도 저희는 함께 영화를 계속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모임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제작을 2편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 13회 순천스쿨영화제도 실시되니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오버액션'은 모든 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영상을 배우고 싶으신 분,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영화 한 편 찍으실래요?"





##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사영상모임 '참네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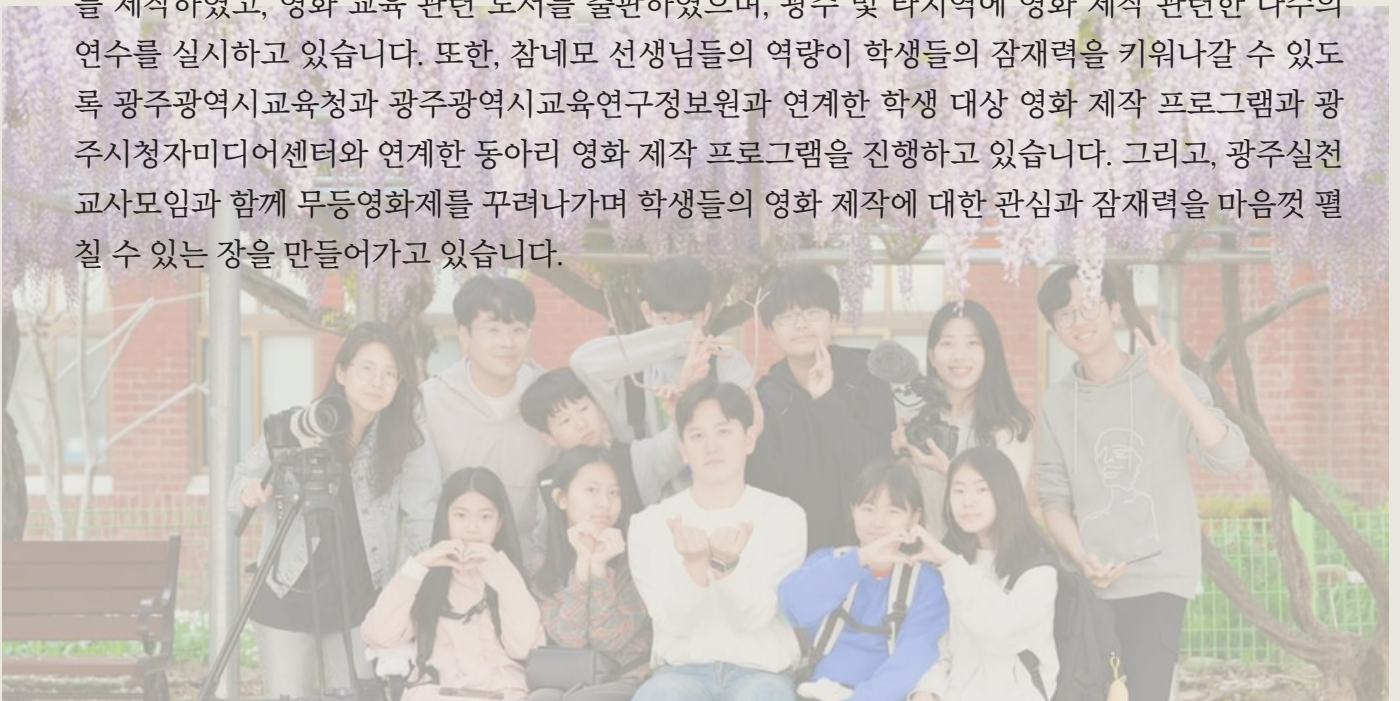
참네모는  
'참'교육 '네'트워크 '모'임의  
뜻을 담은 공동체로 시작하여  
영상 제작과 영화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광주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영화의 '네모난 창에 참된 학생들의 모습'을  
담으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광주와 전국의 영상 제작에 도움드리는 연구회

참네모는 임성열 선생님(현,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께서 대학교 시절부터 다큐멘터리 동아리를 운영하며 쌓은 영상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5년 광주전남 인근의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과 만든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참네모 회장이기도 한 임성열 연구사님은 많은 연수와 교육 나눔을 통해 인근 지역의 선생님들께서 영상 제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역량을 쌓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광고 만들기, 뮤직비디오 제작하기 등의 활동 뿐 아니라 동아리를 운영하며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등 영상 제작의 전반에 대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영상 제작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형성이 바탕이 되어,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게 되어 지금의 참네모가 되었습니다.

참네모 회원분들의 자체 영상 제작 아카데미 및 영화 공동 창작을 통해 영화 제작 역량을 강화한 것을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영화를 다수 제작하고, 많은 영화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상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영상 제작 역량의 확산을 위해 다수의 영상 제작 원격 연수를 제작하였고, 영화 교육 관련 도서를 출판하였으며, 광주 및 타지역에 영화 제작 관련한 다수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네모 선생님들의 역량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과 연계한 학생 대상 영화 제작 프로그램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동아리 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실천교사모임과 함께 무등영화제를 꾸려나가며 학생들의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네모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과 더 많은 곳에서 함께 고민하며 영화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참네모의 역량이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아이들 곁에 가며, 아이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영화 제작부터 퀄리티를 높인 영화까지 아이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작된 영화를 보고 그 속에 담긴 주제 의식과 인물의 감정을 느껴보며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아이들의 역량 신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영화 관련 참네모 및 회원 주요 활동〉

- 제7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초청 및 상영 〈반장이 뭐길래〉(2005)
- 제1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 및 상영 〈체인지〉(2012)
- 제6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 및 상영 〈( )괄호〉(2017)
- 제1회 김포어린이청소년영화제 초청 및 상영 〈더 플라워〉(2018)
- 제8회 광주독립영화제 상영 및 Toronto eye2ey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ob Johnston Memorial 부분 대상 〈몽치〉(2019)
- 제10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 및 상영 〈핑거스냅〉(2021)
- 제11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 및 상영 〈누군가 있다〉(2022)
- 제11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 및 상영 〈그때 우리는〉(2022)
- 제11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 및 상영 〈네버엔딩〉(2022)
- 제1회 평화통일숏츠영화제 통일부장관상 〈젠가게임〉(2022)
- 제5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작품상, 제7회 서울국제창작어린이영화제 작품상, 제2회 대한민국청소년스마트폰영화제 작품상 수상 〈성격〉(2022)
- 제7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촬영상 〈체인지〉(2022)
- 제5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장려상 및 제11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 및 상영 〈소나기〉(2022)
- 제8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우수상, 제23회 대한민국국제청소년영화제 초등부 작품상 은상 〈가끔 미치도록〉(2023)
-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대상 〈수상한 교실〉, 제23회 대한민국국제청소년영화제 초등부 작품상 금상 및 제25회 한국청소년영화제 감독상, 제5회 교육영화제 초청 및 상영 〈수상한 교실 2 : 이새나 실종 사건〉(2023)
- 제5회 교육영화제, 제12회 광주독립영화제 초청 및 상영 〈PET〉(2023)





# 학생들과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국내 주요 어린이·청소년 영화제를 소개합니다. 세부 사항(출품 기간 및 출품 조건 등)은 각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제18회, 2023. 7. 10.~16.  
제19회 공모기간  
- 2024. 2. 13.~ 3. 18.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제11회 2023. 9. 13.~ 9. 20.  
제12회 출품 공모  
- 2024. 3. 4.~ 4. 15.



**대한민국청소년스마트폰영화제**  
제4회 2023 가을영화제  
제5회 봄 영화제 출품 공모  
- 2024. 3. 11. ~ 4. 30.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대전**  
제23회, 2023. 8. 1. ~ 10. 4.



**한국청소년영화제**  
제25회, 2023. 10. 7.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제23회, 2023. 11. 17.~11. 19.



**청소년창작영상제(강원)**  
제25회, 2023. 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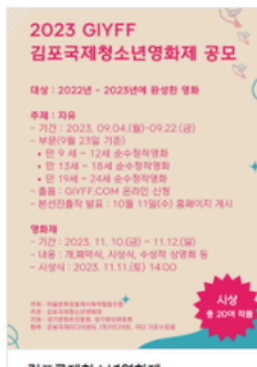
**충북교육영화제**  
제4회, 2023. 12. 9. ~ 12. 17.



**경남 청소년 영상제**  
제 21회, 2023. 12. 2.



**의정부청소년영화제**  
제5회, 2023. 11. 4.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제6회, 2023. 11. 10. ~ 11. 12.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제8회, 2023.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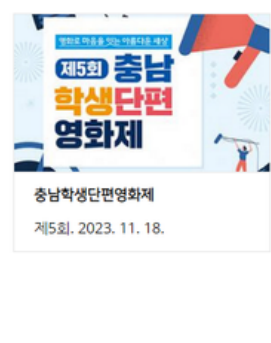
**전북청소년영화제**  
제17회, 2023. 11. 23. ~ 11. 25.



**평택시청소년영상제**  
제20회, 2023. 11. 4.



**대한민국청소년밀알영상제**  
제15회, 2023. 11. 25.



**충남학생단편영화제**  
제5회, 2023. 11. 18.

# 어린이·청소년영화 리뷰 | 교실안의 야크

글 지태민 | 교육영화제 대표 / 서울초등영화교육연구회 회장 / 에듀씨네 운영진

동료 교사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학년이 다가오고 있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던 여름이 물러가고 풀리지 않는 의혹과 답답함으로 가득 찼던 겨울을 보내며 학생들은 떠나갔다. 교육을 둘러싸고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지만 빈 교실을 새로 채울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은 분주하게 3월을 준비하고 있다. 2022 교육과정도 새로 도입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교실이 들어선다고 해서 어느 때보다 걱정이 많은 때이지만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번잡하지 않기를 바란다.

3월 새학년을 맞이해서 가르치는 일의 고귀함과 배우는 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 '교실안의 야크'를 소개한다. 코로나가 한참인 2020년에 개봉한 영화라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교사는 미래를 어루만지는 사람'이라는 잊지 못할 대사(영화 주인공 유겐 교사말로는 사범대학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로 '교사들을 위한 영화'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교실안의 야크'는 쉽게 만나기 힘든 부탄 영화이다. 아마 대부분 이름 정도만 들어봤을 생소한 나라의 작품이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아 2022년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공식 후보에 오른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초반 주인공 유겐이 입고 있는 티셔츠 뒷면에도 나타나 있듯이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순위가 많이 내려와 있다. 영화는 시골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시에서 온 유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부탄이라는 나라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조망하고 있다.

교사를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의 학교 모습(특히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일컫는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의 모습)이 궁금해질 때가 많다.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고 교육 방송에서 하는 '세계의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도 즐겨 보고, 영화교육연구회 활동을 하는 교사로서 학교의 모습이 담긴 영화들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고 있다. 영화 '교실안의 야크'는 교사라는 직업의 소중함과 처음 교사를 시작하면서 느꼈었던 설렘을 오랜만에 다시 느끼게 해주는 뜻깊은 작품이었다.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영화는 부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르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영화 내내 가슴이 확 트이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연이어 펼쳐지는데,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까지 남아 있었다. 가능하면 큰 스크린에서 보기를 추천한다. 이어서 부탄의 수도 팀부가 소개되고 국민총행복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주인공 유겐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다.



초등학교 교사인 유겐. 부탄에서도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만, 유겐은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멀리 호주로 떠날 생각에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아직 교육부와 맺은 5년의 계약 기간 중 1년이 남아 있어서 교육부 장관은 교사로서의 의무를 상실했던 유겐에게 남은 일 년 간 시골 마을인 루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발령을 낸다.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작년 서미초 사건 이후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다. 유겐이 교사를 그만두려는 이유와 대한민국 교사들의 교직 탈출 이유는 분명 다를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교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유는 교권 침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등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유겐이 교사를 그만두려는 이유는 부탄이라는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며 크게 성장했었기에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유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호주는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니, 유겐은 마지못해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8일이나 걸려 도착하는 루나라 시골 학교로 떠나게 된다.

네팔과 인접해있는 부탄은 나라 전체가 고산 지대로, 유겐이 도착한 시골 마을 루나라 역시 고도가 4,800미터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유겐이 루나라로 향하며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해당 장소의 지명, 인구 수, 고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유겐이 떠나 온 부탄의 수도 팀푸는 고도 2,201m에 십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이지만, 유겐이 도착한 루나라는 고도 4,800m에 56명의 마을 주민들이 전부인 시골 마을이다. 영화는 고도와 인구 수의 반비례 관계를 숫자로 짧게 보여주고,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신적 가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순박한 인물들의 표정으로 대신 보여주고 있다.

등산복과 등산화로 무장을 하고 유겐은 여정을 시작하지만 이내 지치고 만다. 먼 도시에서 오는 교사를 맞이하기 위해 루나라 마을에서도 사람(미첼과 싱게)을 보내 유겐의 여정을 도와준다. 미첼은 처음부터 유겐을 극진히 대접하지만, 마지못해 시골 학교로 향하는 유겐은 모든 상황이 맘에 들지 않는다. 유겐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귀에서 이어폰도 빼지 않은 채 일행과의 험난한 동행을 시작한다.





고개와 강을 건너고 산속에서의 야영 끝에 도착한 인구 56명의 시골 마을 루나나. 마을 사람들은 유겐을 환대하고 먼 곳까지 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만, 생각보다 열악한 교실 모습에 유겐은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다. 유겐의 갑작스러운 선포에 당황했을 법도 하지만, 마을 촌장은 알았다며 이틀 후에 돌아갈 준비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틀간 유겐은 수업도 하고 마을을 둘러 다니면서,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행복하고 여유가 넘치는 마을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다. 물론 이곳 시골 마을에서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어른도 있고, 눈으로 가득 찼던 마을의 모습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바뀌긴 했다. 영화는 완벽한 모습이 아닌 조금씩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탄이라는 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부탄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전통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이다.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부탄을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체 관광을 통해서만 여행할 수 있는데, 그것도 1인 1박당 일정 금액의 지속 가능개발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바로 옆 국가인 네팔이 히말라야라는 자연환경을 상품으로 등록해서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부탄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세계화의 바람을 피해 갈 수는 없는 노릇. 텔레비전,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서양 문물의 도입은 부탄 사람들, 특히 도시에 사는 부탄인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실업률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특히 청년들의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루나나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유겐은 도시로 돌아갈 마음을 접고 마을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무엇이 이틀 만에 유겐의 마음을 돌리게 한 걸까? 배움에 목말라 있던 아이들은 유겐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며 수업에 집중한다. 도시로 돌아갈 생각에 유겐은 교실에 늦게 도착하고, 자기소개만 대충하고 학생들한테 일찍 하교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라고 한다.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을 교사의 모습에 의아해했을 법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교사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집으로 향한다. 교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사교육과 입시 교육으로 찌든 일상을 보내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과 달리 교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는 부탄 학생들의 모습이 교사로서 부러워 보이기도 했다.

학생뿐만 아니다. 촌장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 젊은 유겐 선생님에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 존중해준다. 식사 자리에서 촌장은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때만 내어주는 나무 접시에 음식을 담아 유겐을 대접한다. 유겐은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꼭 자신한테 나무 접시에 음식을 담아 줬었다며 고마워한다.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겨하는 유겐은 '야크의 노래'를 부르는 살돈으로부터 목동들이 부르는 노래를 배우며 점점 마을에 동화되어 간다.

모든 것이 부족한 교실에 유겐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칠판과 분필을 만들어 세우고 도시로부터 배운 학용품과 교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순박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뛰놀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변해가자 촌장은 유겐에게 더 추워지고 눈으로 마을이 덮이기 전에 도시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 촌장은 유겐이 내년 봄에 다시 마을로 돌아와 학교를 맡아주기를 바라지만, 유겐은 자신은 곧 부탄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답한다. '부탄은 행복한 나라로 알려졌지만 배운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탄을 떠나려 하고 먼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며 촌장은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유겐을 아쉬워한다.

영화가 관객들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다. 이 진부한 교훈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대다수 현대인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 교실과 학생들의 마음속일 것이다. 하지만, 작년 서미초 사건 이후 학교와 교실이 기본적인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대한민국 교실이 왜 부탄의 교실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영화는 관객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024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 행복하자. 그 어느 곳도 아닌 교실에서.

해당 리뷰는 교육언론창 2월 12일자에 실린 영화 리뷰입니다.







## 그런 쓸데 없는 짓을 왜 해?

글 박경현 | 인천 문학초등학교 / 시네마공작소 / 유튜브 채널 꼬마TV 운영

2007년 당시 갓 1정교육을 받은 신입교사였던 필자는 어느날 갑자기 150만원짜리 캠코더를 하나 구입하였다. 핸드폰 사진이나 좀 찍고 1회용 카메라밖에 조작해 본적 없었지만 월급의 절반 이상을 털어 캠코더를 산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냥, 영화가 찍어보고 싶어서.**

대본은 생각보다 금방 썼다. 구입한 캠코더로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히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다. 문제는 배우. 배우가 문제다. 누구에게 연기를 시킨단 말인가. 사실 답은 대본을 쓸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우리반 4학년 학생들에게 대본을 나눠주고 연기자를 모집하였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보였고, 여름방학때 찍기로 일정을 맞추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10초짜리 장면을 찍는데 5~6분은 금방 지나갔다. 생각보다 원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대본을 쓸 때는 생각지 못했던 장면을 어찌할지 몰라 학생들을 세워놓고 멍하니 대본만 보며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름방학이라 날씨는 너무 더웠고, 3일이면 끝날거라 생각했던 일정은 2주일까지 늘어났으며, 영상은 더 이상 단편영화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 학생들 간식과 점심을 사주느라 돈을 많이 써버렸고, 방학때 쉬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학교에 출근하였으며, 이렇게 길어질줄 몰랐다는 학부모의 원성도 들었다. 학생들에게 남은 방학 신나게 놀라고 하고, 나는 남은 방학동안 처음 써보는 편집프로그램을 두꺼운 책을 찾아보며 꾸역꾸역 편집을 해 나갔다. 결국 방학이 끝났지만 편집은 끝내지 못했다.

개학을 하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2학기 시작 기념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다들 방학때 있었던 일을 하나씩 자랑삼아 얘기하였다. 어떤 분은 해외여행을 갔고, 어떤 분은 60시간 집합연수를 다녀왔다. 어떤 분은 그동안 밀린 치과진료를 받느라 방학이 다 지나갔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리고 내 차례. 나는 정말이지 내 자신을 대견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방학 내내 학생들과 단편영화 촬영을 도전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 얘기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들은 대답은 기대와 너무나 달랐다.

###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했어?'

말문이 막혔지만 이해는 갔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학생들과 영상을 촬영하는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영상제작활동은 너무나 희귀한 일이었다. 편집프로그램은커녕 영상 촬영 자체를 하는 교사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학생들과 영상을 만드는 활동은 위험한 일이었다. 선생님들은 돌아가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다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학부모들이 싫어할게 뻔한데 어떡할거냐. 애들 공부시간 뺏는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냐. 무엇보다, 너는 이제 1정연수 받아놓고 수업연구는 안하는거냐, 라는 말이 가장 날카롭게 나를 찔렀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다. 끝내지 못한 편집을 마무리해야 했다. 이제 작업이 손에 익었다 싶었는데 오히려 편집속도가 더 느려졌다. 이게 맞냐. 관촬은건가. 진짜 이 모든게 괜한 짓인가. 설마, 애들을 내가 망치는건 아닌가. 그래도 완성은 시켰다. 이대로 그냥 손을 놓아버리면 방학때 나를 따라고생한 아이들에게 면목이 없어진다. 무라도 잘라야 했다.

어느 정도 완성된 후 교실에서 간단한 시사회를 열었다. 40분짜리 영상이라 참채 한시간을 영화감상으로 만들고, 과자도 깔고 음료수도 깔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상영을 시작하였고, 이미 편집하면서 질리게 본 나는 내가 만든 영상보다는 그 영상을 보는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하여 우리반 아이들의 리액션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학생들은 친구들의 어설픈 연기를 팔팔대며 재밌어했고, 어느새 이야기에 푹 빠져 집중하며 관람하였다. 연기했던 학생들도 책상 아래로 숨은채 자기 대사가 들리면 짹짹 비명을 지르며 창피해 하면서도, 이내 반짝이는 눈으로 진지하게 자신이 연기한 영상에 빠져들어 있었다. 상영회는 성공적이었고, 아이들은 너무나 재미있어했다. 그냥 들어주는 영화가 아닌, 내가 만든 영화,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였다. 아이들에게는 듣도보도 못한 처음 해 본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 뒤로 17년이 흘렀다. 그동안 몇 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학생들과 영상을 만들어왔다. 우리반 학급활동일 때도 있었고, 우리학년 동아리활동일 때도 있었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자율동아리일 때도 있었다. 이뤄낸 성과도 많았다. 영상 한편이 유튜브 조회수 1000만회를 넘은 적도 있었고, 채널 구독자도 7만을 넘기기도 했으며, 각종 신문과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TV 프로그램에 초청도 되었다. 학생들과 만든 영상들이 케이블채널에서 정식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지역, 전국 가지리 않고 꾸준히 각종 영상대회에서 수상했으며, 교육방송 연구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다. 이 역시 학생들과 함께 만든 영상들로 이룬 성과이다. 하지만, 아직도 영상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으며 즐거웠던 순간을 물어보면 망설임없이 얘기한다. 학생들과 작업한 첫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순간이다.

올해도 역시나 우리반 학생들과 간단한 연습영상을 찍었다. 6분짜리 간단한 패러디영상이다. 아이들은 17년 전 그 학생들처럼 책상 밑에 숨어 짹짹 비명을 지른다. 즐거운 순간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학생들과 영상을 만드는 이유로 충분하다.







# 허니샘과 영화

글 김도현 | 경북 구미 선주초등학교 / 유튜브 채널 꿀잼반과 허니샘 운영

## 허니샘과 영화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 선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크리에이터 김도현입니다. 학생들과 7년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라는 형식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어디 가서 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못 하지만 학생들과 영화 만드는 것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올해도 영화 제작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허니샘은 왜 학생들과 영화를 만들게 되었나

전북에서 근무하시는 강경욱 선생님의 단편영화 작품을 보고 처음으로 학생들과 영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 영화제를 휩쓸고 수상하는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 작품 속 학생들의 상당한 수준의 연기를 보면서 아이들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라는 형식은 제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퀄리티의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나도 잘 모르니 아이들과 같이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나리오도 학생들이 직접 쓰고, 저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질문을 통해 살을 붙여주거나 의견을 내면서 개연성을 살려주는 정도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작품을 지원해 준다는 마음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가 주로 하던 것이 뮤직비디오나 흔히 일컫는 UCC이다 보니 영화제작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영화 제작 연수를 듣다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영화제를 하는 어느 선생님의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저렇게 큰 화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경험은 정말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영화 제작 교육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제를 하려고 보니 작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써보았고, 공모전을 열어 제작할 시나리오들을 뽑아 보기도 하고, 선정된 시나리오들로 모둠별로 영화제작팀을 꾸려 영화 제작을 했습니다. 교사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최대한 조언과 지원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연출, 촬영, 편집도 직접하고 영화 포스터와 영화제 홍보물도 만들어 보고, 티켓도 만들어 판매해 보고, 축하 무대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실제처럼 흥내 내며 준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영화 제작을 하다가 배우가 꿈이 되었다는 말에 실망하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강조하고 중요하게 가르치던 가치들을 담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교육이 참 매력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 1회 전주 영화제, 2023년에 제 2회 전주 영화제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2024년에 제가 또 하려고 제 3회 전주영화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았는데 어떡합니까. 또 해야죠... 허허

## 허니샘의 교육철학

저는 '행복한 추억이 많은 아이들은 항상 안전하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영상 제작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남기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꿀잼반과 허니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남겨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초등학교의 추억을 영화 제작을 하며 남깁니다. 영화제작 소감을 물어보면 아이들은 항상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힘들었으니 오래 기억에 남을 거고, 재밌었으니 오래 기억에 남겠지요. 그리고 그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벅찬 경험까지 함께 남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행복하고 즐거웠던 지금 이 순간을 떠올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영화 제작 교육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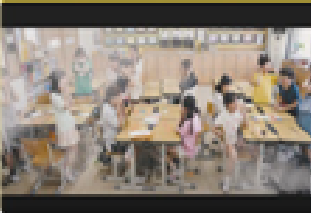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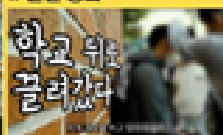
# 꿀잼반 8기

## 행복한 추억이 많은 아이들은 항상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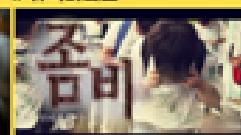
# 꿀잼 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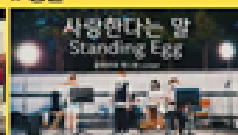
# 단편 영화



# 뮤직비디오



# 공연



# 웹드라마







< 1기 영화창작동아리 홍주누리 친구들 >

# 무한상상에서 시작하여 필연으로 연결되다

글 정진열 | 충남 홍주고등학교 / 충남영화교육연구회

저는 영화 보기를 좋아합니다. 특정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즐겨보는 편입니다. 가족 영화, 교육 영화, 로맨스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등 여러 분야를 좋아합니다.

20여 년 간 교단에 서면서 수업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강의식 수업과 함께 활동지를 직접 제작하여 학생들과 수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접목시켜 영화를 보고 소감을 나누거나, 영화 속 장면을 따라해 보거나, 영화를 재구성하여 발표하는 등 가장 기초적인 수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본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 무연히 공문을 보고 참여하게 된 무한상상 캠프.

'2022 교사 영화제작을 위한 무한상상 캠프'를 무연히 만나면서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의 기초 지식이 없는 제가 참여를 해도 되는지 망설였지만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이끌림이 더욱 더 컸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 제작해 본, 영화에 일가견이 있으신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영화 창작 및 제작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한 학생 영화창작동아리에 지원하여 학생들과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대해 잘 모르고, 기본기도 없었던 저와 저의 고드림에 넘어간 학생들이 한여름 구슬땀을 흘려가며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충남학생단편영화제에 출품하여 교육 감상을 수상하고 대전독립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학생들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더 진지해졌습니다.

처음 출품한 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하게 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촬영 장비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고민하던 차에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청차미디어센터의 청소년 동아리 지원 공고를 보고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고 3년 동안 강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 선생님을 모셔서 학생들과 같이 배우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여름 영화 캠프를 진행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촬영, 편집, 시사회까지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미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되었고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까지, 영화 창작이 주는 힘은 대단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기획 회의부터 촬영, 편집 및 완성작을 만들어 가면서 영화에 빠져들게 되었고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고민을 하던 차에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원에서 영상교육을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으로 읽는 예술, 영상교육방법론, 타이포그래피, 디지털 브랜딩 워크숍 등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영화 창작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에 대해 잘 모르던 친구들이 영화를 알아가고, 함께 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영화를 배우게 됩니다.



< 2기 영화창작동아리 홍주누리 친구들 >



< 3기 영화창작동아리 홍주누리 친구들 >



## 카메라 어떤 것 쓰세요?

글 정도행 | 경기 도원초등학교 / 상상그림디자이너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카메라를 어떤 것을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작품을 보거나 혹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갖는 공통적인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더 좋은 것을 쓰면 더 예쁜 영상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카메라에서 오는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접하는 웰메이드된 영상들의 경우는 예산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카메라를 렌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상, 광고, 영화를 보며, 이 작품은 어떤 카메라로 촬영된 거라고 하면서 그 카메라에 대한 로망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웰메이드된 작품의 장면에서 느끼는 ‘잘만들졌다.’, ‘예쁘다’라는 감정은 사실 카메라의 종류에서 오는 것이라기 보다 미술과 조명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내가 로망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의 비교영상을 보더라도, 그 차이를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정답이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메라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내 작품의 퀄리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도가 얇은 렌즈, 다른 화각의 렌즈를 구입해서 촬영을 하면 내 작품의 변화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카메라와 렌즈가 만들어 준 것이지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장면에 대한 이해와 미술과 조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내가 산 똑같은 카메라와 렌즈로는 누구나 동일한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카메라와 렌즈가 만든 장면이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카메라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특정 카메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내가 꼭 필요해서 구입해야 한다면 물론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장 ND필터 기능이 필요한 업그레이드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 카메라에서 특별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카메라를 바꾸면 작품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예산의 대부분을 카메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촬영 보조 장비들에 투자하는 것이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초보선생님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 1. 외부 모니터

영상,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초기의 경우에는 카메라에 달려 있는 모니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외부 모니터의 필요성을 엄청나게 느끼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특히 지인에 요청으로 혹은 외부에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외부 모니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취미 삼아서 작업하는 경우는 자칫 초점이 나가거나 AF로 초점이 흔들리거나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와 공유를 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 때에 작은 실수들이 생기게 되면 전체적인 작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작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싼 모니터가 아니어도 좋으니,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 2. 반사판, 확산판, 우드락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장소는 원래부터 있던 장소이고, 그 장소의 쓰임에 맞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다르게 접근을 한다면 그 장소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담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장소가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장소 라던지, 아니면 그 장소를 떠올려서 이야기를 만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설정, 날씨, 빛의 각도 등에 따라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만나기 힘들죠.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에 맞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 나의 연출이 들어가야 한다. 그 첫번째가 반사판, 확산판 혹은 우드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소규모 촬영 때에도 부담 없이 촬영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배터리를 체크하고, 삼각대를 챙기듯이, 반사판, 확산판 세트도 꼭 필수 세트로 챙기길 바랍니다.

### 3. 조명

작품의 퀄리티를 변화 시키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신다면, 조명을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의 조명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명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조명이 많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한 개만 필요해 한 개만 사용하는 것과, 조명이 단지 하나 뿐이어서 하나만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겠죠. 만약 예산이 생겨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명의 갯수를 늘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ED 300W급의 조명의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최근에는 꽤 많이 저렴한 조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에 차이로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장면을 구성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빛의 종류에 따라 조명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주광만 되는 조명, 주광과 텡스텐 컬러가 같이 되는 조명, 풀컬러 조명이 있고, 광원의 방식에 따라 점광원, 면광원이 있어요. 또한 액세서리인 반도어, 소프트박스, 그리드등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다양한 조명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하나씩, 두개 씩 설치해보면서 달라지는 자신의 작품의 변화를 관찰해보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들의 멋진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탄생되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영화 수업’ 저자를 만나다.

글 구자경 | 충남 호서고등학교 / 충남영화교육연구회

Q.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 호서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구자경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아이들과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6년째 영화 제작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영화 수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A. 돌이켜 보니 영화 제작 교육에 발을 디딘 지 5년이 지났더군요. 작품 수도 7편이나 되었고요. 처음 영화 제작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영화 제작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저도 방학 때마다 영화를 배우러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고 과분하게도 저의 경험을 연수라는 형식을 빌려 선생님들과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경험과 과정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게 된 광주의 이해중 선생님과 함께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애초에 영화 제작 교육에 뛰어들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대학 입시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로서 어느 날 '이것이 진짜 교육인가?' 하는 회의감이 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신과 수능으로 줄을 세우는 삶에서 그것과 무관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덩달아 그 줄에 서야 하는 삶이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배우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평소 취미로 하고 있던 사진을 영상으로 변형했고, 전공이 국어이다 보니 시나리오 제작 지도가 비교적 수월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영화 제작 동아리를 지도하면서 겪으셨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A.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는데, 다만 점점 장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늘 새롭게 익혀야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지도와 영화 제작 과정의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모로 벅차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처음 뛰어들 때의 가장 큰 난관, 장비와 예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게 시작했어요. 장비도 없고, 장비가 있더라도 사용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현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영상 장비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필요한 장비를 빌려다가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대여 사업이 종료되어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화 제작 지도는 한국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예술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예산은 학교 동아리 예산이나 각 시도교육청 예술교육 담당 장학사님과 협의하시면 긍정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다큐멘터리 영화와 극 영화를 번갈아가며 제작 중이신데요. 둘 중 더 애착이 가는 장르와 그 이유는?**

A.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제작 전 과정이 '학습'입니다. 물론 다큐멘터리가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과 진실을 담고 그 안에 예술성을 가미하면 다큐멘터리도 극영화 못지않게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Q. 주제의 시의성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영화 제작이 인상깊습니다. 적절한 주제 선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까요?**

A. 무엇보다도 주변에 대한 '관심'과 '다르게 보기'겠죠. 우리는 흔히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알고 있거나 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지점이 영화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내 주변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직접 제작을 해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Q. 차기작은 어떠한 주제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A. 급식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급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식판에 오르는지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저 결과물(음식)만 놓고 '맛있네'와 '맛없네'를 외치죠. 급식이 식판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이 들어가는지, 조리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영화 교육에 관심이 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선생님들께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은?**

A. 갓 태어난 아기가 걷거나 뛸 수 없듯이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게 정상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모방하고 응용하면서 천천히 도전해 보시면 어느새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생님께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앞세우시고 뒤에서 뒷바라지만 잘해주셔도 성공적인 영화창작동아리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할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영화 수업’

## 저자를 만나다

글 이해중 | 광주 빚고을초등학교 / 광주살천교육교사모임

Q.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생강 선생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맛도 향도 독특해서 다른 것으로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생강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별명입니다. 교직에 들어선 이래 학생들과 15년째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온 32편의 교육영화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영화 수업을 통한 아이 마음 엿보기>을 만들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영화만들기》를 썼습니다.



Q.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영화 수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선생님들이 만드는 영화는 기성영화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목적도 과정도 모두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구자경 선생님은 이러한 행위에 '교육영화'란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뤄지는 학급단위의 교육영화와,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동아리 위주의 활동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영화수업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마중물이 되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교육영화 만들기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하고, 교육영화를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과정들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Q. 아이들과 오랜 시간 영화를 제작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에는 영상을 편집하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직에서는 홍보 영상 등의 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창작 영화를 제작하고 어린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고민을 담은 우리만의 영화를 꼭 만들어보고 싶었고, 매 학기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서른 작품을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온 저는 낯선한 총각 시절부터, 넉넉한 아저씨가 된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과거의 저를 보며 팔팔팔 웃고, 저 역시 그 시절의 열정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요, 이게 제가 영화를 계속 제작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오랜 기간 함께해온 저의 고민들을 엿봅니다. 또 저는 지금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음으로써 필모그래피가 교직의 나이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Q.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영화 제작에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주제가 선정해지려면 아무래도 악역을 맡거나, 강렬한 캐릭터를 가진 아이가 등장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 반 아이들의 이야기가 여러가지 섞여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연기와 실재를 모읍니다. 그런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에 잘 설명해주고 시작해도, 영화가 나오는 과정을 끝까지 경험해 본 것은 교사 한명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이 과정의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난 다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정을 보면 언제 고생스러웠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Q. 학급에서 만드는 영화에서 소재와 스토리를 모아가는 꿀팁은 무엇인가요?**

꿀팁이라고 까지 할 건 없는데요. 저는 우리 반의 생활 속에서 스토리를 구성해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어떤 주제가 좋을까? 어떤 소재가 좋을까?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를 놓고 아주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익명으로 적은 아이디어 종이가 수백 장은 금세 쌓이고, 제가 하나씩 읽어주면 아이들은 편견 없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연결하고 구성하는 것은 제가 주도하는 편이지만, 이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 단계별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는지 아주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Q. 영화 교육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한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은?**

교육영화 만들기의 목적은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수단일 뿐. 목적은 아이들과 선생님의 성장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교육영화 만들기가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작품, 그것이 바로 교육영화 만들기이고,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제작을 마치고 나면 영화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아를 찾아가기도 해요. 그때부터는 작품이 우리들에게 다른 배움을 선물하게 됩니다. 영화교육은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만 해보신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발을 들여놓으면 나가기 어려운, 매력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도 30초 정도도 가능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을 지가 더 고민이죠. 여러분의 관심을 모아 모두를 놀래킬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저도 관객이 되어 기다리겠습니다.







#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매듭을 짓다

영화 유학을 다녀오며

글 김아슬 | 광주화개초등학교 / 참네모

## 매듭을 짓고 싶다



영화와 영어를 배우고, 익히고 싶었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2017년 캐나다 토론토 영화학교에 입학한 후 2018년에 돌아왔다. 그 이후로 영화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초등 현장에서 아이들,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영상을 제작했고, 감사하게도 전국 여러 장소를 돌며 강의, 영화 제작 연수를 진행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2020, 2021, 2022년 학교 현장은 꽤 혼란스러웠다. 교사들은 도태되지 않게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익혀야 했고, 사회적으로 교사들에게 요구와 민원은 갈수록 높아져 갔다. 나는 딱히 교사로서는 뛰어난 지도 역량이 있지는 않는데, 영상이 온라인 학습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하게도 다양한 곳에서 부름을 받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리곤 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 강의, 연수도 좋지만, 영화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 교직에 대해 피로감이 꽤 있었다. 학급에서 한 아이와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는데 예후가 좋지 않았고, 그게 내 교직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내가 토론토에 가서도 한동안 그 학생이 생각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매듭을 짓고 싶다.’

예전에 캐나다 토론토 영화학교 다닐 때 1년밖에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고,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지난 학기에 이어 수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주저없이 마음먹고 떠났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몇 달간 고민을 했다. 여러 가지 저울질을 했지만 마음이 자꾸 영화학교로 기울는 것을 느꼈고, 나는 그 마음에 반응했다.

‘한 번 더 나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떠났다. 준비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학교 동료 분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 돌이켜보면 감사하고 미안하다. 두 번째 토론토는 예전과 달랐다. 영어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리 낯설지 않았고, 영화제작 현장도 내용도 다 안다고 할 순 없지만 맥락과 흐름을 잡기 어렵지 않았다. 나는 운이 좋게도 교사 출신 학생이라 교육자들이 교육 기관에서 미덕으로 삼는 것들 몇 가지를 항상 했다. 예습, 복습,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빠른 과제 제출. 그리고 남은 시간들은 영화제작하는 친구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현장에 가서 친구들의 일손을 덜어 주었다. 이번 유학 기간에는 특정 기술을 연마한다기 보다는 어떤 역할에 내가 앞으로 전념할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캐스팅 일정을 잡고 행정 일을 하는 Casting runner, 운전자, 현장 스냅사진을 담는 BTS Photographer, 각종 장비들을 운반, 설치, 정리하는 Grip, 영화 현장에 조명을 담당하는 Gaffer, 현장을 총괄하며 영화의 화면을 책임지는 Cinematographer, 그리고 단편영화를 감독하는 Director 역할을 해 보았다. 조명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다양한 포지션들을 해보니 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학교 내외에서 영화, 영상 제작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황에도 항상 미소가 지어지고 친구들과 유쾌하게 장난치던 기억이 떠오른다.

2023년 한 해에는 토론토에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 예전 2019년도에 광주교사영상모임 참네모에서 만든 ‘몽치’ 영화가 토론토 한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때 기분이 묘했다. 한국에서도 괜찮은 반응을 받았던 작품이지만, 영화도시 토론토에서 더 열렬히 반응해 주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 학교에서 단편영화 제작 동아리 활동했던 6학년 여학생들 졸업 선물로 만들었던 ‘언덕나무’ 뮤직비디오가 영화학교 영화제에서 뮤직비디오 부문 대상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선물을 준 셈이었다. 그 덕에 다른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연결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축하도 많이 받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려운 나홀로 유학생에게 더할 나위 없는 운들의 연속이었다. 초등학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초등학교는 학교 나오면 사회에서 할 일이 없다.’

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곤 했는데 나에겐 그 반대였다. 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며 배우고 경험했던 일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았다. 교직에서 몸매 배인 친절함과 섬세함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 자존심이 강한 예술 집단에 있어서 그런지 제작진들이 함께 일하면서 갈등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교직에서 몸으로 배인 부드러운 접근법이 나보다 열 살도 더 어린 학생들과 협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맡더라도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졸업식 대표자로 졸업 연설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몇 안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못 다 한 영화학교 공부에 매듭을 지으러 갔었던 것 같은데, 주변의 응원과 새로운 장소에서 나오는 설렘으로 어느새 나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장편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

영화 진입 장벽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지금, 가치 있는 이야기를 기획, 개발해서 전문 인력 및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작업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몽클하고 가슴이 뛴다. 영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질문과 말들을 듣는다.

“교사 언제 그만 두실 거예요?”

“본업을 무엇으로 할 예정이세요?”

“정말 예술인이세요. 그런데 돈은 얼마나 버세요?”

본캐, 부캐라는 말이 어느새 사회에 유행이 되었고,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난 아직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감하다. 어느 한 쪽도 나에게 가깝지 않다. 실제로 주변에서 영화 산업으로 길을 찾아 새로운 직업을 가진 전직 교사분들도 있다. 영화제에서 입상을 해서 자신의 영화 메시지와 기술력, 예술성을 인정받는 선생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어느 지역 교육청은 학교마다 문화예술 사업비로 영화를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점점 더 공교육에서 영화 제작의 교육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영화 제작을 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교사이면서 학생들과 영화를 만드는 교사들만 느낄 수 있는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과의 영화 제작은 변수가 많고, 지도 교사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과 영화를 제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기에 더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든 작품들이 빛나는 자리들이 많아지길 바래본다.



## 영화교육 관련 연수 및 도서 안내



### 연수 개요

본 과정은 영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영화를 통한 수업 동기 부여를 하는 방법을 제공. 동영상 만들며야 하는 압박 때문에 학교 생활이 부담스러운 교사들이 바로 듣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과정으로 제작됨. 단편 영화 제작을 지도하고자 하시는 현직 교원들에게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본 기술과 지식들을 연수하여 체험활동 및 수업활동에 도움을 제공함.

**강사진 : 고혁민 선생님, 박경현 선생님 외**  
**연수기관 : 교육사랑연구원**



초딩도 따라 하는 단편영화 만들기  
 강쌤의 영화교실

강쌤의 영화교실 (20)



영화교실(1)\_동영상 촬영 준비하기  
 강쌤  
 ★ 5.0 ▶ 1,609



영화교실(2)\_동영상 편집하기  
 강쌤  
 ★ 5.0 ▶ 936



영화교실(3)\_시놉시스 계획하기  
 강쌤  
 ★ 5.0 ▶ 374



영화교실(4)\_영화 용어 배우기  
 강쌤  
 ★ 5.0 ▶ 228



영화교실(5)\_동영상 편집 및 완성하기  
 강쌤  
 ▶ 211



영화교실(6)\_배경음악과 저작권  
 강쌤  
 ▶ 174



영화교실(7)\_시나리오 알아보기  
 강쌤  
 ▶ 175



영화교실(8)\_시나리오 구성요소  
 강쌤  
 ▶ 141

### 연수 개요

스마트폰 키네마스터 어플을 활용하여 교실에서도 쉽게 단편영화를 제작해볼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 동영상 촬영 준비하기, 동영상 편집하기, 시놉시스 계획하기, 시나리오 구성 요소, 시나리오 아이디어 회의, 배우의 역할, 영화 제작진의 역할, 촬영과 편집 노하우 등 학생들과 영화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음

**강사진 : 강경욱 선생님 / 연수기관 : 아이스크림 쌤튜브 파울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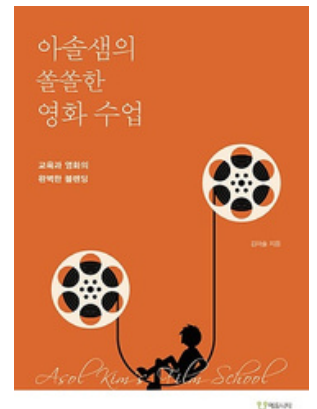


### 일주일만에 똑딱 영화수업 만들기 : 영화수업연구회(김병련 선생님 외) / 작은숲

이 책은 영화수업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영화 리터러시, 영화에 대한 이해, 영상 제작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영화를 매개로 한 수업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 기록이다. 변화무쌍한 학교 변화 속에서 이미 영상세대로 자라나 성장해온 아이들과 영상시대의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수업 중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이나 자료, 수업지도안이나 활동지를 QR코드만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슬샘의 쓸쓸한 영화 수업 : 김아슬 선생님 / 에듀니티

이 책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의 교육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안 그래도 바쁜 업무로 정신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과 영화를 만드는 일은 과연 가능할까? 《아슬샘의 쓸쓸한 영화 수업》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교사들을 위해 쓰인 책이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영화 제작 과정을 초등교사 특유의 티칭 노하우로 차근차근 알기 쉽게 전해준다.



###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교육영화 수업 : 이해중, 구자경 선생님 / 푸른칠판

이 책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영화제작 교육을 했던 현장 교사들의 경험이 담겨 있어, 학생들과 영화제작 교육에 처음 도전해 보고 싶은 교사나 영화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초중등을 망라해 극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광고 제작 등 학급이나 동아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제작 사례를 담고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초등과 중등의 다양한 사례를 학교급별 구분의 제약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차용하거나 응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아이의 마음을 읽는 영화 수업 : 차승민 선생님 / 에듀니티

2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영화 수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직접 영화 수업을 진행해온 저자가 왜 영화를 교육 자료로 선택했는지의 과정과 영화의 교육적 의미를 소개한다. 또한 아이들이 영화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학습능력과 수업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자기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 역사영화 연대비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초기

조선 중기(임진왜란)



조선 중기  
(병자호란)



조선 후기



대한제국~일제강점기



대한민국



현대사





전국영화교육연구회는 영화교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네트워크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아래 QR 코드를 통해 전국영화교육연구회 정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 다양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 2024 전국영화교육연구회 회원 명단

고장섭(강동초등학교(경주)) 고혁민(천현초등학교) 김경환(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김병련(서울영등포고등학교) 김석목(스튜디오설) 김아솔(화개초등학교) 김주광(인천단봉초등학교) 박정은(양지초등학교(광주)) 박주정(한국교원대학교) 서성환(대전교육연수원) 양윤경(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윤용한(송정초등학교(수원)) 이대한(만호초등학교) 이상은(부산수미초등학교) 이재원(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이진향(한국교원대학교 부설월곡초등학교) 이충현(완도중앙초등학교) 이현재(용남고등학교) 장도현(울진남부초등학교) 정도행(도둔초등학교) 정진열(홍주고등학교) 정혜윤(인천중산초등학교) 지태민(서울신용산초등학교) 한지은(서울아현초등학교) 황의석(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영화교육소식지는 교육영화제 홈페이지([www.edufif.kr](http://www.edufif.kr))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영화교육연구회와 협력을 원하시면 [hes1912@naver.com](mailto:hes1912@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 원고모집

영화교육 사례가 담긴 글, 영화교육에 대한 칼럼 및 연재글을 모집합니다.

작성해주신 원고를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편집장 메일([sparkle\\_dao@naver.com](mailto:sparkle_dao@naver.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영화교육연구회**

---

발행일 : 2024.05.10

발행처 : 전국영화교육연구회

기획인 : 전국영화교육연구회 운영위원

전국영화교육연구회 고문 지태민

에듀씨네 한지은

상상그리다필름 정도행

경기영화교육연구회 고혁민

인천광역시 시네마공작소 김주광

대전광역시 씬세계 서성환

충북영화교육연구회 이진향

충남영화교육연구회 이현재

충남영화교육연구회 정진열

경북영화교육연구회 고장섭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이충현

광주광역시 참네모 김경환

편 집 장 : 김경환(전국영화교육연구회 총무)

기획총괄 : 황의석(전국영화교육연구회 회장)

영화교육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